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세상에서도 어설프고, 신앙 안에서도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 능력 있는 신앙인처럼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 땅에 살지만, 소속과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앉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느낌은 자주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름 속을 나는 조종사가 자기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늘에 앉은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땅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만,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아파하지만,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세상에 두신 이유는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겨우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신분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9시30	3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시교독		36번 시90편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38장	다 갈 이
기 도			1부 김실근집사 2부 최정선집사 3부 박성훈장로
성경봉독		야고보서3:13-18	인 도 자
찬 양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성 가 대
설 교		참 지혜는 행 함에 있습니다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25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3:17-18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노인숙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기도의 무기(8) 엽6:18-19
찬송/ 262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시편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2. 주보에 ‘지식의 근본’이 나옵니다.
- 3. 삼일예배에 “기도의 무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 4. 하반기 중보기도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9-11월)
자세한 것은 게시판을 참고 하세요
- 5. 엘리베이터 교체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 6. 3부예배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31일(월) 교단 총회회관헌당식

신석주간기도

-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기도-
신실한 예배와 섬김, 일치의 삶을 살게하소서
우리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큰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에 더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이길연 이홍룡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식근 최정선 박성훈	김춘자/자녀감사
다음주	1층 오종화 김실근 2층 김순미 최영심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홍룡 백지은 이상열	김장옥 노인숙/건강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9.04) 8구역(천영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9.11) 9구역(유은희)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엠피 4장 32절 제 목 -분노하나요? 용서하나요?	활동 1.9월 암송 말씀은 고전 15장 58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용서하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최정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엠피 4장 32절 제 목 -분노하나요? 용서하나요?	1.9월 암송은 고전 15장 58절입니다. 2.매일 성경큐티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기 3.이번주 토요일부터 새소식반 시작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김형섭 형제 기도자 -이재용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20장 22~26절 제 목 -말씀은 삶이 됩니다.	1.8월 성경읽기는 출애굽기, 암송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24절입니다. 2.9/6(주일) 예배는 월초기도회로 드려집니다. 3.새롭게 시작된 2학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김금모 형제 기도자 -강찬식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야고보서 1장 1~4절 제 목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1.9/5(토) 10시 교회봉사 후 1시 사도행전 6장 말씀읽기 나눔, 기도회합니다. 2.9/6(주) 대표기도 김채정 자매입니다. 3.9/13(주) 노방전도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9시 30 3부 오전11시	영유아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솔로몬에게 묻다(2)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 삶에는 단순한 생활 규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규범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규범 몇 가지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순간순간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규범을 잘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를 “아름다운 관”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단지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지혜로운 교회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규칙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복음으로 나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은 잠언 전체를 여는 문입니다. 1절은 이 책의 제목이고, 2절부터 6절은 이 책의 목적이며, 7절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말로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속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담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인생을 미리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풍동을 만들어 날개의 원리를 실험했던 것처럼, 잠언은 우리가 인생의 실제 상황을 미리 살펴보게 합니다. 무엇이 날아오르고 무엇이 추락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배우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음악과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경적 지혜는 돈, 성, 권력, 관계,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참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깊은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통찰력 있는 사고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라는 말씀은 깊은 성품을 말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는 말씀은 통찰력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읽고 배를 목적지까지 이끄는 선원처럼, 지혜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지혜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훈련을 통해 교정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여기서 슬기는 상황을 바르게 읽고 대처하는 민첩함입니다. 지식은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근신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속지 않는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중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지혜는 초보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은 지혜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배웁니다. 바울도 생의 마지막까지 책과 양피지를 가져오라고 하며 계속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는 또한 통찰력을 줍니다. 통찰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설록 흠스가 한 사람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를 봅니다. 부모에게도 이런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가정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이사야, 바울, 어거스틴, 루터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듣고 배우다 보면, 얕은 지식과 기계적인

정답에서 벗어나 참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별 떨며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겸손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판단받는 존재임을 압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입구입니다. ABC를 알아야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고, 음계를 알아야 바흐를 연주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무시하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중간 계산이 틀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는 더 많은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려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참으로 지혜로우신 한 분이 달려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녹을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 속에서 참된 지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제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눔식 소그룹 시편 119:1~16(9월 1일 본문)

온전하고 깨끗한 삶의 비결

하나님 찬양하기 * 나의 사랑하는 책 (새 199)

Focus :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 죄를 멀리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시편 119편 1~1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19편은 거의 모든 구절에서 ‘율법’,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등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119편은 말씀을 중심 주제로 삼는 ‘토라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의 연대나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어느 세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증언하며, 우리를 말씀 사랑의 삶으로 이끍니다.

관찰과 묵상

1.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1~2절)

2.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9,11절)

적용과 나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특정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은 정욕과 죄악을 막아 주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바로 세워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몰아가 성경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충동이 절제되고, 욕망이 거룩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행실과 사람이 깨끗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환경 오염은 사람들과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2.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길, 황폐해진 땅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교회가 영구표어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 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6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열

협동장로: 박성훈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